

*Fireworks

절정의 12월.



- # 201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캠팀의 한달 반성
- # 다일 식구를 소개합니다 최종 4탄
- #Happy Merry Christmas
- # 쌀리아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파티
- #도서 번역 프로젝트
- #환경 프로젝트 Part.1

**번외 이야기

일기&오자토크, 하거나 말거나 리서치, 씨엠립 지도 2탄 사내편, 사진전

#1,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제 4회 캠프 공유회.)

2011년의 끝자락에 다다른 우리들.....

지나온 201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가올 2012년을 맞이하며 이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뜨거운 이곳, 캄보디아에서 함께한 4개월~!

함께 쌓은 추억만큼이나 성장했을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조금은 간질간질하지만 서로에게 약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

그럼 들어보시죠~!



재학이 말한다.

Good Bye 26, Hello 27.

어느덧 2011년이 끝나간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해야.

준비하던 시험을 그만두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으며 고민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라온아미 포스터. "그래! 이거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

내가 꿈꾸었던 26살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예전에 꿈꾸던 26살은 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 사회초년생으로의 힘찬 발걸음 '남들보다 먼저'라는 생각을 가진 모습야. 하지만 지금의 나의 26살의 모습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며 '남들과 함께'의 생각을 가진 모습야.

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씩씩해야 하나? 하하

현재 그것보다 더, 어느 해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던 한해를 보냈기에 씩씩하기 보단 기분이 좋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메시지를 받았다.

"젊음. 부딪혀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다. 성공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야"

26살의 나는 도전을 했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믿거름을 많이 배웠다. 고마운 나의 26살 Good Bye!

2012년 나는 이제 27살야. 꽤 나이도 먹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생활과는 또 다른 다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배운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때가 26살이었다면 이제 27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것야.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못 보던 세상도 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다.

여기 캄보디아에서 배운 것들이 많기에 어느 해보다 다가오는 2012년 27살의 김재학! 기대가 된다. Hello 27살



원영이 말한다.

Don't worry, Be happy~!

이번 해는 유난히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 토끼의 해, 나의 해였던 이번 해에는 편히 기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던 계획은 라온아빠가 되어버리는 순간 확 틀어져 버렸지만, 지금 난 내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보고있다. 아마 내 2011년의 전부는 라온아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무엇을 했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으니까. 씨가 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거부감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곳에 녹아든 것 같다.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곳의 내가 되어 생활 하고 있다.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놀고 웃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심신의 고됨을 치유해주는 나의 비타민 이쁜아들이 있어서 2011년의 삶은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2년의 삶도 행복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나이가 스물여섯인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짧디 짧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내가 하고싶은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온 것 같다. 나의 끌림이 향하는 일들은 결국 하고말았던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여전한 고민은 이제는 그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한다는 압박감! 잠깐 캄보디아에서 정산줄을 놓고(살짝 미친척 그려야 즐거우니까) 즐겁게 살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2011년은 끝났지만 아직 나에게 한달이라는 유효기간이 남았으니 친찬히 생각하고 정리해봐야겠다. 아마 나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겠지만 여던 답이 내려지던 간에 그 길에는 내 열정과 도전과 신념이 있기를 바라고 그럴 것이라 믿는다.

자금은 현재의 이 행복함을 어떠한 시련에도 놓치고 싶지 않다. 2011년과 2012년의 경계에서 별반 다를 일 없는 것처럼, 자금만큼만 행복하게 살고싶다. 그리고 한달 남은 캄보디아 살이! 내달동안 배운 팀이 있다면 '살짝 미치면 캄살아가 즐겁다?!' 2012년도 미친 듯 즐겁게 살아보자!

성래가 말한다.

매일매일 뜨겁고 격하게

올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돌아보면 극과극을 달린 한해였던 것 같다. 이런 저런 고민 끝에 휴학을 결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지난 상반기와 반대로 캄보디아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열심히 사는 하반기는 고3 시절만큼 열심히 살아본 것 같다.

무미건조한 상반기에는 깊은 고민과 속에서 자캐며 내 인생의 목표를 머리로 그려본 시기라면 뜨거운 하반기에는 머리로만 그려왔던 목표들을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를 세우자면.. 과거와 같이 잘 지키지도 못할 취업을 위한 토익 몇 점, 학점 몇 점, 자격증 몇 개 등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딱 하나! 새해에도(한국에 돌아가서도) 캄보디아에서 살았던 것 같이 매일매일 뜨겁게, 격하게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ㅎㅎㅎ

주민이 말한다.

미래의 두려움 보다 현실의 감사함으로

내겐 2011년은 다이나믹한 시간이었다. 학교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새해를 이탈리아에서 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말 즐겁게 2011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학기를 마치고 또 꿈처럼 라온아미에 선발되었다. 3주간의 정신없던 국내훈련과 출국. 캄보디아에서 보낼 5개월.

5개월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해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시간이 빨리흐른 것 같다. 벌써 4개월을 자냈다니.. 익숙해진 시차와 이곳의 더위에 익숙해져 한국에서라면 시원하다고 느껴질 날씨가 이제 चुچه 느껴지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부쩍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보다.. 라고 느끼게 된다.

2011년 스물두살이 된 친구들을 보며 나는 아직 스물하나라며 위안을 삼았었는데..... 영화 제목만큼만 알았던 2012년,, 이제 정말 스물두살이 되어버렸다.. 22라니! 내 나야라는데 믿기지 않는다.... 언니오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아직 어리지만.. 정말 느낌이 이상하다.ㅠㅠ

곧 4학년이 된다는 생각이 더해져서 그런가? 책임감도 더 커지고 어깨가 무거워진다.. 흑흑 올해도 2012년 새해를 타국인 캄보디아에서 맞이하게 된다. 캄보디아 생활 4개월차라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그간 쌓인 경험들이 내가 가는 길의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2011년. 아직 당장 한국에 돌아가 복학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들.. ㅠㅠ 2011년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임한다면 2012년도 생각지 못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미래의 두려움보다 현실의 감사함으로, 2012년도 화이팅!

**첫경험- 처음 나가는 해외! 이탈리아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남
처음 외국에서 장기간 삶.
처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함

처음 집을 오랫동안 비움
처음 생면부지 4명의 사람들과 삶을 살아감
처음 새해를 타국에서 보냄



정연이 말한다.

하쿠나마티타 2012

to. 친애하는 정연



안녕? 정연아^^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게 쉬울 줄 알았는데..... 무척이나 숙스럽구나. 어떻게 자내고 있지? 이제 곧 2011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있지? 너에게 2011년은 다른 해 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 볼 수 있었던 신선했던 한 해, 기회의 해, 어쩌면 운이 가장 잘 떠났던 해 였던 것 같아.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제작한다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 복수전공은 관심 분야랑 조금은 멀었지만.... ㅌㅌ 생소했던 타전공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물론..... 복수전공을 계속 이어갈지는.... 꼼꼼히 생각해보자.. 하하하^.^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라온아미!! 그때가 아마 시험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나?? 해야되는 공부는 인하고.... 잠잠 쉬다가??? ㅋㅋㅋㅋ 인터넷을 이리저리 살피던 도중 발견한 라온아미!!! 그래도 그때 시험이

굽혔던지 바로 검색해보자는 못하고 시험 다 치루고 한번 검색해보야자라는 생각에 달력에 조그맣게 메모해뒀었는데.....
 그것이 나의 5개월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지. 정말 행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캄보디아에 있어. 지난 4개월동안 눈에 띄는?? 피부로 확 느낄만한 드라마틱한 변화는 찾기 힘들었어. 하지만
 왠지 나 자신이 안정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한국에서의 '나'는 어딘가 붕 떠있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캄보디아에서의
 4개월 동안의 많은 경험들과 시간들이 '추'가 되어 하나, 둘 쌓여가며 '나'에 무게를 실어주는 기분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나를 더 무게감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키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지
 나온 날들에 대해 기대가 되는 건 왜지?ㅋㅋㅋ 내일은 기대해 봤어도...ㅋㅋㅋ여튼 내일에 대한 기대처럼 지난 날에 설레
 여~!!! 이런 기분좋은 기대를 바탕으로 나의 2012년을 계획??다짐??해봤어!! 일단 난 태생이 키차니즘st인 것 같아. 여
 기와서 많이 반성했지ㅜㅜ그래서 나의 2012년은 부지런을 떨어볼거야. 그것도 유난스럽게말이야!!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운
 동도 해보고 시간이 닿는 한 여러 가지들을 마구마구 해 볼 작정이야^^어라 하나 잘 걸리면 대박이지뭐ㅋㅋㅋ 그리고
 2012년에는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기로 했어. 이때까지는 혼자 해보려고 공공 앓았던 적이 많았어ㅜㅜ이
 제는 허락한다면 남에게 기대어도 보고, 힘들면 help me~!!도 외칠래. 함께해서 더 나은 '무엇'들을 같이 만드려고 노력
 할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는 것도 오케이, 구호요청하는 것도 오케이자~!!!아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사항들
 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든 후회는 남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말자.'라는
 목표를 가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종종해. 여기 캄보디아에서도 완전 짜란짜란하게
 했지ㅋㅋㅋ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이런 고민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행동력있는 사람,
 한 걸음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2012년이
 기대된다~!! 2012년도 아자아자!!

**막간을 이용한 캄팀의 한달반성.

재학: 귀찮아 지는 게..... 좀 많아 진다.....

성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을 반성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포기가 쉬워졌다.

정연: 기록하는 것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일기든 사진이든ㅜㅜ
 한국가서 후회한들.....ㅜㅜ오늘부터라도 열심허!!

원영: 귀차니즘이.... 반성합니다.ㅜㅜ

주민: 의문이 많아졌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2. 개성넘치는 다일식구를 소개합니다.

제 4탄 최종회.

-캄보디아 씨엠립 다일NGO 빵퍼&오피스 스텝편-

*이들없는 다일은 앙금없는 단팥빵
오피스 스텝들~!



영란간사님♥

최윤정팀장님의 뒤를 이어 아동결연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신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차분한 성격으로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계신다.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현지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엄청 잘한다고 하셨지만... 간사님.. 아마도 조금 더 계시면 간사님이 저희보다 더 잘하실거예요.. ㅋㅋ

찐눈♥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찐눈은 센터의 통역담당이다.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 실력도 입증되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도 수준급이다. 아피의 크메르어 수업 선생님이며 유치원, 중학교, 도서관 등 아피의 활동에 함께하고있다 요즘은 한국어 책 번역작업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일등공신이다.

25년동안 교수하고있는 5:5 가르마스타일! 나이에 맞지않는 찐눈의 가르마를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도익크니어(똑같다)..ㅠㅠ 찐눈의 5:5가르마가 언제쯤 사라질까? 한국가면 사라지거나??





펼라♥

친절함에서 들췌가리면 서러운 펼라! 간사님과 함께 아동결연 업무를 담당하는 펼라는 약간의 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모르는 것을 물어보곤 하는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라면 당장 학교선생님인 오빠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주는 친절함을 보고 모두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파리♥

파리파리아파리 초파리 날파리 왕파리 똥파리, 파리아~~ 등등 이름으로 아파들의 놀람을 많이 받지만 언제나 웃으며 이제는 우리의 장난을 즐기는 수준이 된 파리!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한국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파리의 자신감을 키워주기위해 일부러 한국말로만 말한다. ㅋㅋ 그래서인지 한국어 실력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국 노래가사를 틈틈이 질문하며 찌눈이 없을 때 통역을 대신해주는 것도 한다. 영어역시 수준급이라 최근 영어책 번역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아파들은 모두 파리의 영어실력을 부러워 한다.



* 손으로 빛어내는 사랑 빵퍼 스텝들~!



사로앗♥

모든 스텝들이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 사로앗은 밥퍼키덤둥이 노부야의 아가이며 키여운 찌뜨리의 엄마야. 시크한 매력으로 빵퍼의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으며 스텝들과 아파들의 손을 싹틈없게 하는 엄청난 속도의 빵 반죽 떼어내기 신공을 가지고 있다. 사로앗의 숨겨진 한국어 실력은 아피 모두를 놀라게 하였으며 6기부터 고급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로앗의 한국어 실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궁금해진다.

사룬♥

사로앗의 동생이며 빵퍼에서 가장 어린 스텝이다. 하얀 언니와 다르게 자신은 인예쁘다며 가끔 질투 할 때도 있지만 까무잡잡한 피부와 개구쟁이같은 성격이 사룬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분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자신은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시켄♥

가끔씩 빵을 만들다 추는 시켄의 춤은 특별한 볼거리야. 이미 춤꾼으로 소문나 있는 시켄. 이제는 아무데서나 춤을 추지 않아서 춤을 추는 그 때를 잘 포착해야 한다!!!. 칭일점 보파를 차지한 용기있는 여자이며 약간의 시크함을 가지고 있지만 보파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여자이다.

보파♥

보파는 항상 잔잔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소천사야. 보파 라는 이름은 꽃이라는 뜻으로 보통 여자이름으로 많이 쓰이지만 보파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은근히 강력한 남성미를 뽐내고 있다. 오븐에서 빵을 꺼낼 때 나타나는 팔의 잔근육들은 모두가 감탄을 내뿜게 한다. 이 모습에 시켄이 반했을까??ㅋㅋ 항상 붙어있는 둘은 빵퍼의 잉꼬커플이야. 결혼은 언제할까라는 장난에도 그저 웃기만 하는 보파, 가기전 보파의 대답을 꼭 듣고 가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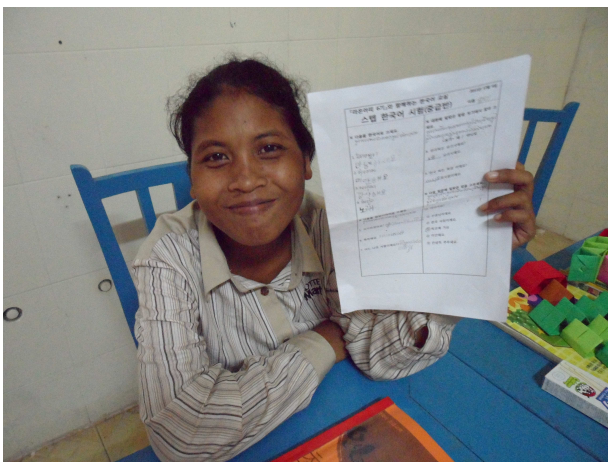
짜니♥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웃긴 빵퍼의 대표적인 개그우먼이다. 특히 옆 구리를 찌르면 항상 하는 말은 아직도 모두에게 미스터리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는다..ㅠㅠ 은근히 뛰어난 기억력으로 한국 어시험도 good! 얼마전 뱀에 발을 물려 한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괜찮다며 아픔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짜니! 항상 써바이써바이 한 모습은 모두를 즐겁게 만든다.



펠리♥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는 펠리. 요즘 들어 한국어를 무척 열심히 공부해서 넉그루 정연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원장님께 칭찬도 받았다. 처음에 오피스펠리와 이름이 같은 줄 알아서 빵퍼 펠라 라고 부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다..ㅋㅋ 특히 펠리의 날씬한 다리는 여자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므이♥

처음 본 므이는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어서 쉽게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므이의 실체는 말도 많고 장난도 많이치는 은근한 장난꾸러기였던 것이다. 정말 100% 꼭 닮은 tk김빛의 엄마이며 둘째를 출산할 날이 얼마 안남은 임산부야. 출산 예정일이 2월달이라서 둘째아기를 못보고 간다며 아쉬워 했는데 예정일 착오로 요즘 출산이 임박해있는 상태야. 둘째는 엄마랑 얼마나 닮았을지..ㅋㅋ

★★★★★므이! 무사히 건강한 아기 출산하길!

#번외. Diary.

재학이의 일기 - 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영화 'FAME' 을 보았다.
영화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마지막쯤에 나왔던 대사가 너무 감명 깊었다.
'성공이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에 대해 설레면서 즐겁게 집을 나서
는 것.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것. 성공은 우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공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다.
나는..... 반 성공? 하하.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집을 나설 때 즐거웠던 적은 많았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겁고,
술 팀과 현지 스텝과 지난 시간동안 우정도 쌓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하하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계속해서 눈을 떴을 때 즐겁고 설레었으면 좋겠다!!

원영이의 일기 -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캄보디아에 온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었다. 정말 환경문제로 인한
이상 기온인건지... 아침에는 발이 시려서 잠에서 깬다. 벌써 코도
출쩍이고 있다. 이 더운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감기만 몇 번째다. 눈
다래끼도 벌써 한달째가 다되어가고 있고 마음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내 몸이 지치고 있기는 한가보다.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더워서 이불도 다 걷어차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랬었는데, 날이 많이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 날씨가 춥다고 긴팔 옷을 꺼내 입고 심지어는 라온아띠 바람막이까지
챙기는 우리 모습에 우습고 신기하다. 캄보디아 살이 3개월 만에 어느덧 현지화가 다 되어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가 되어버렸다. 좋은건지 나쁜건지 호호호. 문득 한국에는 눈도 오
고 영하 기온이라는게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걱정된다. 한국은 얼마나 추울
까?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이곳에 사는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함께
생활해간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사람과 사람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실천하고싶
다.

주민의 일기 -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요즘들어 한국인 봉사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성수기에 돌입했나보다. 오늘도 여전
히 봉사자들이 쪼란쪼란(많다)이다. 이런날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한국사람들 눈에 띄려고 붙어있다. 그
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도중 이곳으로 봉사온 여자 중학생 둘이 갑자기 자신들 옆에 붙어있던 한 아
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아닌가? 순간 드는 느낌이 자기들 차로 가서 과자같은 것을 주려는 낌새였
다. 혹시나 하고 따라갔는데 역시나, 한 아이는 과자를 가지러 차로 간 후였고 한 아이와 캄보디아 아

이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이곳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과자나 사탕을 주는)을 하면 이곳 아이들을 더 안좋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앞에서는 과자가 지러 간거 아니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뒤돌아가는데 바로 몰래 과자를 꺼내 주는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자주보면서 참드는 생각이 많다. “캄보디아” 라는 나라로 여행이든, 봉사든 다일공동체에 밥퍼를 하면서 단 2-3시간동안 만나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은, 나역시도 이곳에 처음와서 느꼈던 순간의 강력한 감정적인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불쌍함->연민, 동정심.. 그 짧은 시간동안 이곳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로 인한 행동이 아이들을 망치고, 이들이 이 환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까? 그들은 그렇게 순간의 감정으로 이곳을 느끼고 평가 할 것이다. 관광객이 많이 올 때마다 주변을 얼쩡거리는 아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아이들,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브미 초콜렛이라고 외쳤던 것 같이 스꺼끄로압을 외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된 아이들.. 개발도상국이 관광국이라는 상황..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상래의 일기 -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이번주는 캄보디아에서 특별한 한 주였다

바로! 부모님의 방문...ㅋㅋ

내가 가끔 전화로 “ 캄보디아 너무 좋다 좋다 ” 이러니 평소에 좋고 싫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들의 심경변화가 신기하였는지 교회 몇 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찾아오셨다. 그것도 급작스럽게...

사실 우리 팀 중 처음으로 지인이 방문하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스케줄도 짜보고 이래저래 신경 써 봤지만 경험부족인지 막상 오를 가시고 나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다.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기에 막상 부모님과 며칠 동안 같이 있다는 것이 참 오랜만이어서 어색함도 살짝 있었고, 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낯설기도 했지만 3개월만의 만남은 역시나 특별했다.



4일 동안 센터에서 같이 밥퍼를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또한 톤네샵 호수, 앙코르와트를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좋은 곳도 모시고 다니고 괜히 효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특히 원장님, 부원장님이 바쁘심에도 너무나도 잘 대접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스러웠다.

부모님이 오시면서 가져온 꼬꼬면과 나가사키짬뽕 한 박스, 한국 밀반찬은 우리숙소 식구들의 활력소가 되었고 센터에도 이것저것 많이 주고 가셨다. 역시 우리 부모님은 손 크기로 유명하실텐... 아무튼 캄보디아에 와서 가장 백센 한주였지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한주였다.

- P.S 1. 재학 형, 정언이 부모님의 방문도 결정!!
- 2. 부모님 가신 후 2주 뒤 새로운 지인 방문하셨음.
- 1월에도 몇 팀 오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개인목표(이거 아직도 다른사람들도 쓰나??--)

- 72KG까지 감량하기로 했지만 지금 2달째 74KG.. 몸이 완전히 적응했는지 이젠 땀도 많이 안 나고, 자전거를 매일 타지만 체중은 그대로.. 머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깐!

오늘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역시나... 태우고... 찢어지고... 흑흑 도저히 이건... 민폐의 수준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기에... 난 항상 계란말이를 자르기만 했었다^^* 이렇게 요리를 해보지 않은 티가 단박에 나다니... 좀 민망스러웠다. 지나가는 스텝들 마다 전부 미은뻘뻘(문제있어~)라고 놀리고 센터에서 자주보는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씩~!! ㄱㄱ 왜 잇 짜앗(예쁘지않게)하게 하나며..... 의 기소침해지는 순간이었다. 그치만 큰 슬레이머가 그때마다 나를 다독여가며ㅋㅋㅋ엄마가 딸래미 다루듯이:) 응원해 줬다. 짱짱♥!! 이러다가 나 결혼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계란말이도 못하는 내가 결혼할 수 있겠냐고 큰 슬레이머에게 물었더니 결혼하면 요리는 남자가 하면 된다고며 괜찮다며~!! 잇 뻘뻘(문제없어)라며 토닥토닥 위로해줬다. 날 토닥토닥 쓰담쓰담해 주는 큰 슬레이머를 보니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다. 흑흑 오늘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큰 슬레이머~!!! 좀 더 연마를 하거나..... 열심히 칼질만 할게요ㅋㅋㅋㅋ

아~! 그리고 어제 마니또를 뽑아서 그런지 모든 스텝들이 다들 막막 넘치게 친절하다. ㅋㅋ 조그마한 일도 다들 발 벗고 도와주려고 하고:) 재료손질을 주로하던 내가 계란말이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큰 슬레이머가 마니또 아니냐며~~다들 지금 자신의 마니또 찾기에 바빠다 바빠~! 나 역시 내 마니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동시에 내 마니또(내가 몰래 잘해줘야 할^^)에게 어떻게 몰래몰래 들키지 않고 도움을 줄까?라는 고민이 몹시 된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내일부터는 탐정모드다~!!!

*다섯자로 말해요. 오자투크~!

재학: 캄뿌찌머늬

(캄보디아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제 이곳에 적응도 했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들이 좋다. 그렇담 나도 캄보디아 사람???)

성래: 덤벼라단기

(방학을 맞아 1월부터 단기봉사팀을 비롯하여 엄청난 한국사람들이 온다고 한다. 벌써 다음주 스케줄만 하루에 최대 150명 정도가 센터에 온다. 빠르게 굴리는 조교가 되어야지.)

정연: 카페뜨꺼♥

(주말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프놈끄라움 4거리 별다방에서 커피를 마셔야 하는 나는 진정한 된장녀?? ㅋㅋㅋ 1500리엘이면 스벅 아메리카노 저리가라~인 카페뜨꺼를 마실 수 있다!! 정말 힘이 들 때에 마시는 카페뜨뜨뜨뜨(커피+연유)도 엄지엄지~!)

원영: 뜨거운겨울

(눈이 내리지 않는 캄보디아에서의 겨울, 몸도 마음도 모두 뜨겁게 살고 있다. 끄다으 나~!!)

주민: 뽀아크마스

(검은색이라는 뜻이다. 11월달까지만 해도 스텝들이 내 피부를 보면서 아직은 뽀아씨(흰색)라며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뽀아크마스, 캄푸찌와 도익크니어(갈다)라며 이야기한다. 이제는 정말 시커매졌나보다.. ㄱㄱ 4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지냈다는게 더 실감나는 것 같다.)

#번외2. 하거나 말거나~!리서치

-라온아피의, 라온아피에 의한, 라온아피를 위한 리서치!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4개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 라온아피는 서로에게 그리고 그 삶속에서 신기하고 희귀한 점과 순간을 맞닥뜨렸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오직 라온아피의, 라온아피에 의한, 라온아피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물론 하거나 말거나 리서치!!! 자율적으로 실시하시길... 흐흐흐.

1. 아시아 각 국가에 파견된 라온아피들! 다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터넷 사양이 좋지 않아서,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각 팀의 보고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 ① 어떻게 알았지? 한번도 본 적 없다.
- ② 우리팀 보고서 보기에 도 벅차다.
- ③ 스크롤바의 압박! 사진만 본다.
- ④ 무슨 소리! 라온아피의 사명을 걸고 나는 꼭꼭 본다.

2. 어느 덧 4개월, 심경의 변화도 크지만 아마 신체적 변화도 겪고 있으리라... 말 즉슨, 남 아피들은 살이 빠지는데 여 아피들은 살이 찐다는 불가사의한 사실! 과연 다른 국가의 아피들은?

- 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우리팀. 정상 몸무게를 항상 유지중!
- ② 나도 나도!!! 진짜 이상하다! 왜 여아피만 살이 찐는가?
- ③ 우리팀은 함께 마음도 몸도 무게를 늘려가고 있다 ^^

3. 우리 캠프 아피들은 비교적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들이란 소리를 들어왔다. 그런데 알고보니 팀의 최고령자 재학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모두 형제중 첫째란 사실! 그래서 그런지 막내인 울팀 최고홍아는 캠프의 재간둥이를 맡고 있다. 정말 라온아피는 장남 장녀가 많을까?

- ① 나는 첫째다. ② 나는 끼어있다.
- ③ 나는 막내다. ④ 나는 혼자다.

4. 자칫 깃 다들 무사히 잘 살아왔지만, 배 앓아라던가 감기 등등의 잔병들을 겪은 우리 캠프. 캠프는 일심동체라 했던가! 한명이 아프면 줄줄이 단체로 아프다. 이것저말 같은 상황들. 그대들은 어떠하냐?

- ① 감기가 뭐임? 우리팀은 너무 튼튼해!
- ② 네가 아프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 ③ 타지에서 아픈 서로움을 함께 이겨냈다!

5. 지금 이 설문지를 읽고 있는 당신, 그대의 생각은?

- ① 뭐 이 허접 설문지는? 콧방귀를 뀌었다.
- ② 오, 역시 우리는 라온아피!
- ③ 걍 관심없음. 얼른 한국에서 만나요!

*※허접한 설문지를 함께해준 라온아피 그대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못다한 얘기는 다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3. Happ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Party.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모든 스텝들과 함께 모여 파티를 연다. 그 곳에 이번엔 우리 라온아피 6기도 참여를 했다.

장소는 클리닉 선생님으신 김계숙 선생님덕!
모든 스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그 동안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항상 센터에서 일하는 앞차 입은 복장만을 보다가 한껏 멋을 부리고 온 스텝들을 보니 '오! 이런 모습도 있네!'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모습은 아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구나! 같이 자냈지만 아들을 너무 몰랐구나TT'는 생각과 함께. 하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한 후 생애 단원이 준비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몸으로 말해요'를 했다. 이런 게임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현지 스텝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모든 스텝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이 게임의 MVP는 밥퍼 스텝인 '큰 스테이밍!! 꼬끼리를 설명하는데 다들 포크레인을 설명하는지 알았다는! ㅋㅋㅋㅋ.

두 번째 게임은론 두 눈을 가리고 사물을 맞추는 게임을 했다. 현지스텝들은 겁도 없는지 덩석덩석 물건을 만지며 금방금방 정답을 맞추는 바람에 진행하는 생애 단원이 조금은 당황하기도~!! 이번 게임의 MVP는 빵퍼 스텝인 '보파'. 고무찰흙을 먹었나(?). 망설임 없이 입으로!! 하하하



세 번째 게임은 협동심 테스트였다. 바로바로 바닥에 가장 발이 작게 닿아야 이길 수 있는 게임~!!! 이 게임으로 스텝들과 함께 몸과 몸을 부딪치며 한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10일 전에 뽑았던 마니또 공개시간을 가졌다. 10일 동안 서로 몰래몰래 챙겨주며 관심을 가지게 했던 마니또, 서로 마니또를 공개하면서 각자 준비해온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았다. 한국 스텝들은 현지 스텝에게, 현지 스텝들은 한국 스텝들에게, 각자 어떻게 도와줬는지 공유를 하면서 '아! 야해서 재밌구나!' "응? 그랬나?"라는 반응들이 나오며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하나 되는 시간을 마무리 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번 2011년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과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였다.

Merry Christmas! 나의 소중한 사람!

#4. 함께 해yo~! 신나는 크리스마스

-쌀라아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김재학 단원의 쌀라아띠 멜로디언 반 이야기

10월부터 시작된 ‘멜로디언 반’의 목표는 크리스마스 공연이었다. 예체능 교육이 전무해 음계조차 모르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 지 어느덧 3개월. 드디어 목표로 했던 크리스마스 공연 날이 다가왔다. 우리 반은 두 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섯 명 반은 22일 밤부터 시작하기 전에, 다른 2명은 크리스마스 날 공연을 하기로 했다.



공연 2주 전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곡들 중 3곡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정말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어. 연습을 제대로 해 온 친구들만 공연을 할꺼야.” 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일주일이 지나고 공연을 하기로 한 주의 월요일에 아이들의 연주를 들어보고 나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 때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합주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각자 따로 놀았던 소리들은 어느새 한 음을 내면서 훌륭한 연주가 되어 있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바로 이런 것인가?’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함께여서 참 고맙다’ 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공연 시작 전 아이들에게 “긴장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 있게! 빨라지지 말고 박자 맞춰서!” 라고 용기를 주며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드디어 공연 시작!
많은 관중(?)들 앞에서 아이들은 살짝 긴장을 하며 연주를 시작했다. 다섯 명 반은 ‘에델바이스,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명 반은 ‘에델바이스, 구슬비, 징글벨’ 연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해주었다. 보는 내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스텝들이 너도 나도 아이들이 잘 한다고 칭찬해주었다. 나는 공연이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너희가 멋짜! (최고)” 라고 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었다.

사실 1월달부터는 이런저런 활동들로 인해 쌀라아띠 멜로디언반은 수업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연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썼고 욕심도 많았다. 내 기대대로 아이들은 훌륭히 보답을 해주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귀찮은 직

도 많았고, ‘왜! 이걸 못해’라며 답답해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싫은 내색 하지 않고 수업 시간이 되면 멜로디언을 들이밀면서 웃는 얼굴로 “재학! 빨리 수업 하자”고 한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참 고맙다.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나의 쌀라이띠 멜로디언반 친구들!
“스라이린, 스라이닛, 리사, 리다, 소치, 다반, 첸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김원영 단원의 쌀라이띠 미술 반 이야기

캄보디아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이 동네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에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였다. 넥끄루원영의 쌀라이띠 미술반 아이들 역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간 함께 헤온 아이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Take1. 수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구상 중이었던 작품전시회를 준비했다. 도서관 한 벽면에 그동안 아이들이 그려왔던 예쁜 작품들을 정리하고 액자를 모양까지 만들어 예쁘게 붙혀놓았다. 전시회라 할 거창한 것도 아니지만 제법 그럴싸했다. 도서관을 드나드는 아이들 또는 어른들까지도 꽤나 신기한 표정으로 보고 지나가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괜히 뿌듯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술반 아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가리키며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았다.



Take2.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게 내 눈에도 선했다. 함께 수업하며 나를 넥끄루원영원영 하면서 잘 따라주고 정도 많이 쌓인 이제는 내 새끼같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싶었다. 한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싶냐고 물었더니 스꺼끄로얍! 사탕이라며 정말 단순하게 대답하는 이 순수한 영혼들 한편으로는 귀여운 아이들. 어떤 것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하던 내게 선물은 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란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답이었다. 예쁜 상자에 맛난 과자들을 차곡차곡 넣어 소소하지만 진심을 담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이 작은 선물



하나에도 함박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에 내가 다 감사한 마음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은 주머니에서 하나같이 과자, 사탕, 굳것질 거리들을 꺼내 나에게 선물이라며 하나씩 챙겨주기까지...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해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쁜 추억들을 만들어가야겠다. 모두들 어쨌든 짜란~ 크 스폐란 네악!

**조성래 단원의 쌀리아띠 한글 중급반 이야기

12월 초, 나는 쌀리아띠 한글반 아이들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멜로디언 반과 리코더 반, 그리고 영어반은 공연을 한다고 한다. 갑자기 무대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애들아 우리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앞에서 캐럴 불러볼까?”라는 제안에 아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다급해진 나는 “끝나면 씨엠립에서 놀고 저녁 사줄게!”라고 1차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헐;; 아이들이 갑자기 180도로 변함.. 환호성을 지르면서 “멘??(진짜??)”를 연발하면서 당장이라도 무대에 설 것 처럼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도전곡은 ‘저들밖에 한밤중에’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다. 초반의 연습은 순탄치 못했다. 여자아이들은 중창단원들이기에 곧잘 노래를 했지만 남자아이들은 모두 저질 성대를 가지고 있었기에(자신들도 인지하고..) 금붕어마냥 입만 벅긋거렸다.

몇 번의 연습을 반복해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무언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너네가, 특히 남자애들! 목소리 크게 내면 내가 톤네메콩(11월 보고서, ‘씨엠립 어디까지 가봤니?’에 기재되어있는 뷔페) 데리고 갈게”라는 2차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그날 도서관은 돼지먹 따는 소리로 가득했다.

결전의 23일 오전 10:40분. 아이들이 리허설을 하기위해 도서관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던 아이들이 씨엠립을 갔다니 모두 패션리더가

되어서 왔다. 마지막으로 돼지를 한 번 더 잡고 우리는 밥퍼가 시작되기 전 공연을 하러 무대로 향했다.

사실 나도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남자아이들의 저질 성대 때문에 공연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숙소에서 발견한 연습용 바이올린을 잡았다. 바이올린을 같이 한 목적은 단순히 관객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래도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꼬마들 앞에서 쫄지 않고 무난히 공연을 마친 건 대견스러웠다.



우리 반 아이들은 대부분 중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만큼은 밥퍼를 같이 도와보기로도 한 날이었다. 집안 형편이 그나마 나은 친구들이라 비록 센터에서 밥을 먹는 학생이 없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도 언젠가는 같은 국민들끼리 돕고 도움받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 권유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센터에서의 남은 활동을 마치고 툽툽이를 타고 씨엠립으로 이동하여 우리는 먼저 오락실로 갔다. 짠토라는 여학생이 동전을 따는 일종의 도박 게임을 하여 대박을 터트리며 우리는 그 동전으로 게임을 하고, 새로 생긴 DVD방에서 아이들이 고

른 '기생령'이라는 한국 공포영화를 봤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서운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 것 같다.

우리는 5시 30분에 식당에 도착했는데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먼가 뻔뻔하여 매니저에게 밥을 먹어도 되냐고 확인한 다음 식사를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마르고 키도 작다. 우리 반 아이들 역시 한국의 또래 아이들에 비해 3살 정도 어려보이는 체구이다.

아무튼 덩치가 큰 나는 뷔페 같은데 가면 4~5점시를 먹는다. 그런데 나는 하수였다. 이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0그릇 씩 먹었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를 빼고 말이다...

왜 톤네메콩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알 수 있었다.

비록 나는 배탈 때문에 한 점시를 먹을 때마다 화장실을 한 번 가야했지만 뷔페 같은데서 오랜만에 본전을 뽑은 것 같아 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고되긴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제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것 같아 경제적으로 큰 출혈이 아깝기 보다는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찌마, 스라이누, 소피의 학부형이자 밥퍼스텝인 른 슬레이멈은 나에게 전화를 해 "어쨌든 찌란, 어쨌든 찌란(너무 고마워요)"를 연발하여 괜히 부끄럽기도 했다.

어쨌든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처럼 보낸 크리스마스이다. ^__^



**한주민 단원의 쌀리아띠 한글 초급반 이야기

쌀리아띠 한글 초급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카드 만들기를 하였다. 초급반내에서도 연령대와 수준별로 반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한글 중급반처럼 노래와 같은 공연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장 어린 10살 '싸'는 아직 아주 기초적인 글자만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라서 언니들처럼 많은 글자를 쓰고 꾸미지는 못했지만 한자한자 열심히 쓰려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 두 시간에 걸쳐 열심히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약간 지나긴 했지만 도서관 한편에 전시 해 놓았다.



항상 예습, 복습, 숙제를 열심히 해 오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선물 대신 시엠립으로 다올레이(놀러가기)을 하러 가기로 했다. 시엠립으로 떠나기전 나름대로 깔끔하게 단장하고 온 애들을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ㅋㅋ 센터를 마치고 시엠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앙코르와트를 갈지, 흑썩스트리트(놀이동산)을 갈지, 최근 새로 생긴 dvd방에 데려갈지 고민



했지만 영화를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시간이고 놀이동산 가기에는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트레이드센터를 구경을 하고 옆에있는 오락실을 가기로 했다. 처음보는 오락기계들에 어린 싸는 깜짝놀란 표정이었다. 계속 엇째!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발견한 두더지잡기! 못한다고 말은 했지만 두더지를 잡는 순간.. 초롱초롱해진 눈을 볼 수 있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날의 달레이는 재학단원의 멜로디언반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재학단원이 인형뽑기로 인형을 4개나 뽑고 코인뽑기에서 50개의 코인을 뽑는 황년의 놀던 실력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어쨌든!!!(아주감사합니다.) 나도 어떻게든 한 개 뽑아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나에게 한 개의 인형도 내어주지 않았다...ㅠㅠ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며 게임하고 저녁을 먹으러갔다. 아이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한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뷔페이기에 뷔페로 gogo!!

오랜만에 시엠립에 나와 재미있게 놀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만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길 바라며 2012년도 다같이 파이팅!

동일하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싸를 시엠립에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문화충격을 받은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리고 오락실 자주 나가지 못하는 시엠립구경을 시켜준 건 좋지만.. 아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선물받고 놀러나가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쌀리아띠의 본질이 변하는건 아닌지.. 혜택받는 아이들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정연 단원의
살리아띠 리코더 반이야기

- 첫 번째 공연 (12월 23일)

드디어 23일 금요일..... 두둥 크리스마스 맞이 리코더 공연이 있는 날. 공연 전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아이들과 총 연습도 해보지 못한 채 (분반이여서 서로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었다는... ^^) 빠듯한 시간 내에 연습과 공연을 마쳐야 하는 정신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함께하기로 한 친구들은 모두 6명, 하지만 밥퍼 전 공연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남자아이 2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공연 시간과 서랏과 메이홍을 기다렸다. 공연 시간이 임박했고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들만 공연에 올랐다. 작은 별을 시작으로 에델바이스, 징글벨까지 세 곡을 연주하였다. 아이들이 많이 긴장했던지 내 뒤뎡무니만 졸졸졸, 심지어 자신의 차례에 리코더를 뒤집어 부는ㅋㅋㅋㅋ 그래서 공연 도중에 서로 웃음이 빵 터지기도 했다.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자신들이 연습한 곡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두~! 연주한 아이들이 자랑스러웠다. 공연 전 쑥쓰러워서 못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짧은 실력의 캄보디아어로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했던 말이 전해졌던 것이라고 그 순간 믿고 싶다. 아님이 녀석들이 전부 무대 체질이었던가?? 잘했든, 못했든간에 함께 리코더를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아이들이었다. 허둥지둥했던 선생님 때문에 더 긴장했을 아이들.... 미안해 애들아~!!! 하지만 너희는 정말 멋짜~!!!! 엄지엄지였던거 알지???



이렇게 공연을 마치려는 순간..... 저 멀리서 두 남자녀석들이 날 보더니 헹 하고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그 녀석들... 빠져버린 것이다.....ㅠㅠ



두 번째 크리스마스 공연 (12월 25일)

이야기를 들어 본 즉슨, 약속시간에 맞춰오려고 했지만... 자전거의 문제로 조금 늦어버린 것이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의도치않게 둘만 빼고 서둘러 공연을 시작하였고.....그 둘은 자신들만 빼 놓고 공연한 줄 알고 화가났던 것이다. ㅜㅜ 찐눈에게 부탁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하자고 설득했지만....쿨하게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 하지만 난 다 알아ㅋㅋ너희

들 표정이 말해주고 있잖아.....ㄱㄱ 결국 설득 끝에 크리스마스에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안했으면 섭섭했을 정도로 정말 잘 해내주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하는 공연은 뭔가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빨간 리본을 준비해갔다. 부끄럽다고~ 안한다고 쭈뼛쭈뼛 빼던 두 녀석들의 모습이 신하다. 여자아이들은 뭐 말안해도^.^ 원래 예쁜 아이들이니까^^

어쩌면 다른사람에게는 우리의 공연이 허둥지둥 오합지졸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는 공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다.

제각각이던 소리들이 하나로 모여 귀중한 하모니를 이뤘다는 것,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며 양보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들을 말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따뜻한, 뜨거운 크리스마스였다.



아 참 참~!!! 그 남자 두녀석의 깜짝 서프라이즈 크리스마스 선물ㄱㄱ 완전 감동먹었다.

(***발찌를 손수 채워주고 있는 서랏~!!!
메이홍~! 반지도 너무 예뻐!!)

#5. 도서번역 프로젝트

캄보디아에 오면서 한국에서 그림책을 100여권 후원받아왔다. 영어책, 한글책 반반씩 그때는 그저 도서관에 책이 얼마 없다가에 그림책이라도 보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후원받아왔지만 캄보디아에서 자라지 않아 안 되서부터 '책을 번역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한 캄보디아인 or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오래한 한국인을 컨택하여 재능기부형식으로 번역을 부탁 하는 일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번잡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기에 생각만 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씨엠립 내에서 이 일에 착각한 인물을 찾아보는 일. 이것 또한 가능성은 더 컸지만 고작 5개월만 살고 한국에 가는 나로서는 후속관리 및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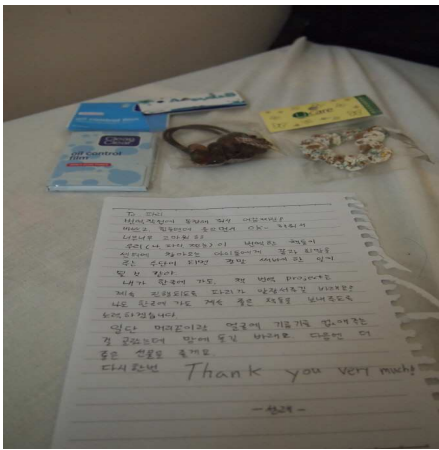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망각하고 있던 인물들이있었다!!! 그것은 바로 센터의 한국-캄보디아의 통역을 맡고 있는 찐눈과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도 꽤 하는 오피스 스텝 파리!!! 사실 이들은 센터에서 가장 브레인에 속하기에 업무량도 많고, 이래저래 바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책 번역을 맡기는데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같이 자빠 보면서 그들이 바쁜시간 만큼 한가한 시간도 꽤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먼저 작업을 건 대상은 찐눈. 차킨과 음수수, 라면, 개고기 등 먹을 것으로 조공을 먼저 바친 다음 책을 한 권, 두 권 씩 부탁하자 찐눈은 빼도박도 못하고 나와 함께 책 번역 사업에 시작하게 되었다.



찐눈과 같이 오피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하자 나의 계획대로 파리 또한 관심을 보였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리에게도 영어그림책을 부탁했다. 선물과 함께..ㅋㅋ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Project의 취지를 전달 하였다. '내가 한국에 가면 책은 어떻게든 또 보내줄 수 있지만 그림책 번역작업은 결국 너희들이 담당해야한다. 단순히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나라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공감되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

파리는 취지를 이해하고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찐눈은 자꾸 먹을 것을 사달라고만 할 뿐.. —ㅋㅋ 아눔자식!(사실은 누구보다 속 깊은 찐눈^^)



그리고 원장님과 본격적인 진행을 의논하면서 번역본을 감수해 주실 다른 기관의 관계자 분들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단순히 번역된 내용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책에 붙이는 방법이 아닌 인쇄소에 맡겨 투명한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책을 16권 정도 번역했고, 1월까지는 40권 정도를 번역하여 감수를 맡길 예정이다. 특히 '곰꾸는 율리', '미당을 나온 암탉', '구름빵' 같은 10권씩 후원받은 책들도 번역이 다 되었거나 마무리 과정에 있어서 감수가 끝나고 부착작업이 끝나면 수상 마을로의 책 대역사업도 가능해지게 된다.

물론 아직은 시작단계이기에 먼가 많이 부족하고, 사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확신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찐눈이든 파리든 아니면 제 3자든 이 사업의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6. 환경 프로젝트 Part.1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달 정도 남은 우리 아파들의 '레임 덕' 현상을 없애 줄 '환경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환경프로젝트는 우리가 이곳에 온 9월, 원장님께서서는 예체능반 쌀리아씨는 12월에 종료하고 1월에는 지역조사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는 말씀과 함께 진행된 활동이다.

1차 회의 시간에는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었다. 여성인권, 미혼모, 환경 문제가 주제의 후보로 거론되었고 우리 팀은 아무래도 눈에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고, 걱정되었던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 주제로 삼았다. 1주일동안 현 실태나 문제점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2차 회의 시간에 서로의 의견 및 현 상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캄보디아는 분리수거, 재활용 개념이 없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통도 설치비 \$15, 수거비 매달 \$10 등 만만찮은 가격으로 인해 쓰레기는 아무렇게 버려지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인식이 현 실태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게다가 모든 상점이 비닐봉투를 남용하고 있어 특히 비닐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아직은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버텨가고 있지만 점점 산업화가 발달되고 있기에 적절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리가 생각해본 해결책으로는 쓰레기통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시장과 같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기도 했다.

또한 원장님의 피드백으로는 단순히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비닐봉투의 대체재로 신문지나 달력같은 종이들을 이용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직은 의견을 조율하는 시기이기에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본격적인 환경프로젝트는 1월부터 시작 될 것이다!!



#번외3. 두다리와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덕분에 아파들의 다리에는 알이 빠!!! 누구보다 튼튼한 캠프 아파들^^

시엠립, 어디까지 가봤니?

part 2. 시내편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대학생해외봉사단

RoomAtti

시엠리아프, Siem Reap, 캄보디아

길찾기

내 장소

A 렉키몰
★★★★☆ 시엠립 최고의 쇼핑몰
여자아파들의 산책코스

B CALTEX(가솔린)
★★★★☆ 주유소에 있는 커피점
가장 자주 찾는 커피집
만남의 장소

C 사진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사진관
한 장에 350리엘 정도의 가격

D 한인 중고 자전거
★★★★☆ 약간 사기, 가성비 별로임
그래도 고장 수리는 잘해주심
사장님이 이것저것 시엠립에
대한 정보를 주심

E 대박집
★★★★★ 삼겹살 무한리필! (10인당 \$5)
아파들에게 너무 잘해주심
대체 전기수들이 얼마나 갔길래 ㅋㅋ

F 복사집
한장에 50리엘
양면은 70리엘
능력에 따라 애누리 가능!

G 과일가게(캐나다)
가장 싸게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곳

H 레드피아노
★★★★★ 시엠립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안젤리나 졸리가 단골이었던 곳
맛은 그냥 그렇음

I 블루펌킨(The blue pumpkin)
★★★★★ 빵이 제일 맛있는 곳
2층에서 다리뻘고 앉는 쇼파있음
가게이 좀 비싼편임
되장질하는 곳

J 컴온그라운드(Common&Ground)
★★★★★ NGO에서 운영하는 카페
커피와 식사가 괜찮음

K Moloppor Cafe
★★★★★ 이탈리아인 운영하는 이탈리아음식점
피자와 파스타가 맛있음

L Trade 센터
1층 피자집, 마켓, 2층 DVD방, 3층 오라실
센터아파들이 좋아하는 곳

M 현지 이발소
★★★★★ 가격 \$1 !! 사진들고가면 그대로 만들어 줌
서비스로 마사지도 해 줌, 머리는 안감겨 줌

#번외4. 12월 사진전



**오늘은 다양한 동물들의
의성어, 의태어를 알아본 날~!
깡충깡충 토끼가 된 두 친구들~~!



**동화책 '으뜸 헤엄이'를 함께 읽었어요^^
도장 광광☺ 다 함께 큰 물고기를 만들어보자~~!

**스텝한국어
중간고사 날~!!!
오온님의 미소는^^
오온님찬양!!
거기~시켄&보파 컨
닝은 안돼똥TT





크리스마스 트리를 몸소 실친한 주밍키
알록달록 한주밍키~♥

얼굴이 말가루 범벅이 되어도 좋아요:)
함께 브이브이V



동식 떠으 꼬레T, T
동식아 잘 살고 있니??
라온아띠 8기 고고!!!!

함께라면 항상 즐거운 우리들^^
여러분~!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